OMS Korea 창립예배 성료…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잇는 새로운 출발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OMS Korea 류승동 이사장과 송재흥 대표, OMS Korea 선교사훈련원장 노윤식 박사, 교계 인사들과 OMS 본부 제프 에드워드 총재를 비롯한 폴 & 미셸 슈스터 아시아 태평양 본부 대표와 임직원들이 함께하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잇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류승동 OMS Korea 초대 이사장은 한국오엠에스선교회(OMS Korea)가 창립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선교의 활성화를 이어가도록 다짐하였다.

이번 OMS Korea는 창립예배를 통해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선교사 파송, 리더 양성 등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예배에는 교계 관계자와 목회자,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OMS 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제프 에드워즈 총재는 설교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현장의 필요에 응답하는 '성육신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MS Korea는 국제 OMS와 협력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역량을 세계 선교 현장과 연결하고, 교회개척과 전도, 제자훈련, 다문화 · 난민 사역, 의료 및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교회가 받은 선교적 은혜를 세계에 나누며 선교의 동반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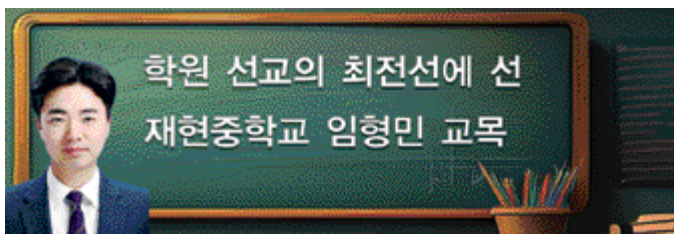
OMS는 1901년 설립된 국제 선교단체로, 한국과도 오랜 선교적 인연을 이어왔다. 한국은 OMS의 초기 선교 활동을 통해 복음과 성결의 메시지를 접했으며, 이후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OMS Korea는 창립 과정에서 초대 이사장에 류승동 기성 전 총회장을 추대하고, 이사진에 기성, 예성, 감리교, 장로교 등 초교파 선교 자도자들을 위촉하여 구성하였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을 역임한 노윤식 목사(주님앞에제일교회)와 전북지방회장 윤호웅 목사(익산반석교회)가 위촉되었다.

OMS Korea 송재흥 대표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겠다"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창립예배를 통해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 OMS Korea가 한국교회의 선교적 자원을 세계 현장과 연결하고, 복음과 섬김을 함께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로 성장해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갓 블레스 유'가 '닭백숙'으로… 다음 세대의 진짜 선교지는 '학교'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공동화 현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청소년 이하 복음화율 4%라는 통계(2025년 8월 12일, 기독일보 기사) 앞에서 '다음 세대 위기론'은 교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역설처럼,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소를 학교로 옮겼을 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부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6년 8월 4일,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재현중학교' 교목(인성부장) 임형민 목사를 만났다. 학사장교 복무 후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 안산 동산고와 영훈고를 지나온 그는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학원 선교의 베테랑이다. 임 목사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를 '공식 선교지'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한국 교회 생존 전략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종교적 공백, 오히려 복음의 백지 상태

임 목사에 따르면 현재 중 · 고등학생의 약 60~70%는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부(無)종교 세대'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보다 무관심과 무지가 복음 전파의 더 큰 장벽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복음 전파의 황금기로 분석한다. 선입견이 없기에 성경적 가치를 편견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목사일 수 있다"라는 그의 책임감은 학교가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시사한다.

'닭백숙' 세대를 위한 문화적 번역

임 목사는 고등학교에서 사역하던 때, 한 학생이 "지난주에 부른 '닭백숙' 노래가 너무 좋다"며 제목을 물어온 일화를 소개했다. 찬양 '축복합니다'의 후렴구 'God bless you'를 그렇게 알아들은 것이었다. 자막으로 가사를 띄웠지만,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아이의 귀에는 익숙한 음식 이름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는 "교리를 전하기에 앞서 노래 · 영화 등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적 문법을 활용한 접점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기독교의 핵심인 공동체성과 사랑을 먼저 체감하게 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예성 교목회' 창립과 선교 동맹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개별 사역을 넘어선 교단 차원의 구조적 혁신 제안에 있다. 국내 미션 스쿨의 70~80%가 장로교 · 감리교 소속인 현실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출신 사역자들은 임용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임 목사 역시 동산고 재직 시절 교단 배경 문제로 정규직 임용에 한계를 겪었다.

그는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소수 교목을 결집해 사역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예성교목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동산고 시절 후임자 추천 요청을 받았으나, 교단 내 준비된 인력 정보가 없어 결국 타 교단 선생님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쉬움은 실시간 매칭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 대목이다. 나아가 그의 구상은 일반 학교의 예성 출신 기독 교사까지 아우르는 선교 동맹으로까지 확장된다.

길을 만드는 '움직이는 그루터기'

기자는 그를 보며 '움직이는 그루터기'를 떠올렸다. 척박한 학교 현장에서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이제 예성의 후배 사역자들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 임 목사가 학교라는 황금어장에서 던지는 그물은 한국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장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가리킨다.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행보에 응답할 때다.

글 · 류형창 목사
총회 교육국장

건강 칼럼

조생구 원장
한사랑병원

난청

"뭐라고? 안 들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나이가 들면 으레 겪는 증상으로 넘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난청은 소외감과 우울증을 키울 뿐 아니라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다행인 점은 난청이 조절할 수 있는 치매 위험 인자라는 사실이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 재활로 난청을 치료할 수 있고, 실제로 난청 치료가 치매 발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최근 난청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인구(노화)의 증가다. 젊은 층에서는 이어폰 사용에 따른 소음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치료의 첫 단계는 보청기 착용이다.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증폭해 내이로 전달하는 장치로, 주로 경도 · 중등도 난청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난청이 고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보청기만으로 말소리를 충분히 분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소리는 들리지만 말과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공와우는 기능이 저하된 달팽이관의 역할을 대신해 소리를 전기 자극으로 바꿔 청신경과 대뇌에 전달하는 의료기기다. 치료는 귀 안에 내부 장치 이식 수술을 한 후 상처가 회복되면 외부 어음처리기를 착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환자 개개인의 청각 반응에 맞춰 소리 자극을 조절하는 '맵핑(mapping)' 과정이 진행된다.

▶난청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난청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포함한 청각 재활치료는 난청 정도에 따라 소리를 다시 뇌로 전달해 소통을 회복하는 중요한 치료다. 난청이 지속하면 회의나 모임에서 말을 자주 되묻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위축된다.

실제로 최근 난청이 사회적 위축을 넘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관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어 난청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년의 치매 위험요인 가운데 난청이 약 7%를 차지하는데 주목할 점은 난청은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라는 사실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무엇인가.

국내 청각장애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를 착용한 군에서 착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생이 적었다. 다만 80~90데시벨(dB) 이상의 고도 난청에서는 보청기 착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인공와우 적응증에 해당하는 70dB 이상 난청 환자를 다시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 착용군의 치매 발생 양상은 정상 청력군과 거의 비슷했고 그다음 보청기 착용군,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환자군 순서로 치매 발생이 많았다. 이 결과는 고도 난청에서는 보청기보다 인공와우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난청 치료의 중요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인공와우 치료에서 수술만큼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적응 과정이다. 인공와우는 이식 직후 바로 자연스러운 청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전기 자극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돕는 것이 청능 훈련이다. 청각사, 언어치료사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통해 환자의 연령과 난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청각 재활치료를 한다. 아울러 인공와우와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살피는 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술 이후에는 청능 훈련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언어치료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환자가 치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